

러 바그너 10일 철수, 우크라이나戰 판세 '주목'

(용병 그룹)

탄약 부족으로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서 퇴군 선언 백린탄 사용하며 공세 지속... '연막작전 우려'도

러시아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이 탄약 보급 부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지역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장서온 러시아 최대 민간 군사 조직으로 현재 바흐무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동남부 도네츠크 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는 러시아의 제1 목표지역인 돈바스 점령을 위한 지리적 요충지로 바그너 용병과 우크라이나군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SNS를 통해 "탄약 부족으로 인명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 확실하다"며 철수를 경고했다. 이 같은 위협에도 러시아 정부가 별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바그너 그룹은 6일 성명을 통해 10일부로 철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러시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는 바그

너 그룹이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뒤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철수 작전은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라면서 바그너 그룹의 철수가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그너 용병이 철수할 경우 러시아 정규군이 교체 투입돼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백과 혼란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정규군은 물자 보급과 병력 충원 등 작전 지속을 위한 전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군은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병력의 대다수를 훈련 경험에 없는 예비군과 사면을 바라는 죄수들을 전쟁에 동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바그너 용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신중하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9일 예정된 전승절 행사를 기념해 바흐무트를 완전 함락할



러시아 바그너 용병 그룹이 점령 중인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선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계획을 세웠다"면서 "다른 전선에 배치됐던 바그너 용병들이 바흐무트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했다"며 철수 선언이 '연막작전'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바그너의 철수 선언에도 러시아는 또다시 민간 지역에 백린탄을 투하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바흐무트 비점령 지역 내 민간인 거주 구역에 백린탄

을 투하했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린이 병영으로 보이는 건물과 인근 지역이 백린탄에 의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악마의 비'로 불리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용이 금지돼 있는 화학 무기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개전 초기부터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백린탄을 지속적으로 사용돼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대반격을 예고하며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바그너 그룹의 철수가 전쟁을 종결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글로벌 클래스

美 켄터키 더비서 경주마 잇단 사망

7마리, 약물 사용 촉각

미국 3대 경마대회인 '트리플 크라운' 중 올해 처음으로 열린 켄터키 더비에서 7마리의 말이 잇따라 사망해 추위 촉이 조사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처칠다운스 트랙에서 열린 제149회 켄터키 더비에서 '클로이 드림'과 '프리징 포인트'는 경주에서 부상을 입은 뒤 안락사됐다. 이는 최근 며칠 동안 트랙에서 죽은 6번째와 7번째 경주마다. 앞서 와일드 온 아이스를 포함해 조교사 사피 조셉 주니어가 훈련시킨 말 두 마리가 사망했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잇따른 사망으로 동물보호단체의 경마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약물 사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 최대 경마장인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타 경마장에서 반년 만에 30마리 이상의 말이 폐사해 주 정부에 대화를 긴급 중단시킬 권한을 주는 법안이 시행됐다.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한 조교사 릭 더트로는 2011년 그의 헛간 책상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물이 담긴 주사가 발견돼 뉴욕 당국에 의해 10년 동안 면허가 취소됐다. 트리플 크라운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조교사 밥 배퍼트는 2021 켄터키 더비에서 그가 키운 메디나 스피릿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주 후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실격됐다. 스포츠 중앙 관리 기구에서 추진하는 새 반도핑약물 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6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처칠다운스 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말이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루이빌 AP-연합뉴스

워런 버핏 "대만보다 믿음직한 대기업에 투자"

"중 침공 가능" 美 주류 시각 반영... TSMC 주식 대부분 매각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런 버핏은 6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상황을 반영해 버크셔가 대만보다는 일본에 자본을 배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일본 기업들 중에서 지난달에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코 △스미토모의 지분을 7.4%까지 늘렸다고 밝혔고 더 투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 회장은 투자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매우 견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적절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재매입 했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엔화 표시 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환율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투자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곳의 일본 기업에 투자를 늘린 것과는 반대로 버핏은 최근 대만의 TSMC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줄였다. 버핏은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에 대해서는 "놀라운 회사"라면서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오른쪽)과 팻 이건 씨즈 캔디스 사장 겸 CEO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 "대만보다는 일본에 자본을 배치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이라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버크셔는 지난해에 TSMC에 40억 달러(약 5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3개월 만에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자자들 역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런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멩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버핏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중국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를 협력업체로 삼은 애플의 성공을 지적하면서 "이 회사는 국가 모두가 좋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과 잘 지

내는 것이다. 상호 이익을 위해 중국과 많은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고 웰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에 355억 달러(약 47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인 55억8000만 달러(약 7조4000억 원)에서 6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탓에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익이 줄었다.

올해 92세인 워런 버핏 회장은 1965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던 섬유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를 시작으로 스게이코 △BNSF철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씨즈 캔디스 △스테어리 퀸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제조와 소매 업체를 합해 수십 개의 사업체를 가진 대기업으로 변신시켰다.

임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CJ CHEILJEDANG

리턴업 Returnup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나의 건강 특별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